

# 서동요 해독 및 해석의 관점\*

민 찬

- |                      |                 |
|----------------------|-----------------|
| 1. 서론                | 1) '薯童房乙'       |
| 2. 해독 및 해석의 관점       | 2) '乙乙'         |
| 1) 기존 연구의 경과         | 4. 참요 <서동요>의 함의 |
| 2) 동요지험의 논리          | 5. 결론           |
| 3. '薯童房乙'과 '夕日乙'의 문제 |                 |

## 1. 서론

향가가 지니고 있는 한국문학 내부의 비중, 특히 한국고시에서 차지하는 향가의 독보적인 위치는 그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같은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향가를 전공하는 많은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관심으로 향가 해독에 매달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향가에 쏠려 있는 연구의 열기를 넉넉히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분위기 덕에 향가에 관한 연구성과는 국문학의 타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sup>1)</sup> 그 중에서도 특히 <서동요>의 경우는 모자람이 없는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 동안 줄잡아 30여 명을 상회하는 연구자들이 해독에 매달려 온 결과 <서동요>에 관하여는 생각해볼 수 있는 거의 모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BM1017).

1) 10여 년 전에 정리된 향가 관계 논저목록에 의하면 순수논문을 포함하여 향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글이 총 2,379편 소개되어 있다. 1983 『鄉歌·古典小說關係 論著目錄 1890~1982』, 단대출판부 ; 1993 『鄉歌·古典小說關係 論著目錄 1983~1992』, 단대출판부 참조.

든 방식이 동원되어 해독이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크게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sup>2)</sup>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서동요>에는 특히 몇몇 난해구들을 중심으로 해독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아직도 연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해독이나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구석이 남아 있다는 말이다.

다양하게 해독이 진행된 마당에 <서동요>의 해독이나 해석에 관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견해를 피력할 여유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해독의 성과를 끌어들이며 필자 나름의 관점에서 검증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를 마련하게 된 동기라면 동기이다. 다행히도 <서동요>는 그것을 포함하는 <서동설화>라는 관련설화가 있어 해독이나 해석을 위한 실마리를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서동설화> 역시 우리의 대표적인 광포설화 중 하나인 <내복에 산다>를 바탕에 두고 있어 거기에서도 <서동요>의 해독 및 해석을 위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관련설화와의 비교·검토를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관점을 확보하고 그 관점 아래 <서동요>의 해독 및 해석 작업을 시도해볼 예정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해독보다는 해석의 문제로서 <서동요>에 관한 한 이미 해독은 이루어졌고 남은 것은 이제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어학적인 접근의 결과를 문학의 입장에서 받아들여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모색을 거침으로써 <서동요>의 내용 및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서동요>의 해독과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서동요>를 담고 있는 <서동설화>, 그리고 그것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내복에 산다> 등의 두 가지 설화를 논의에 반영하고자 한다. <서동요>와 <서동설화>를 관련지어 논의한 연구성과들은 그 동안에도 많이 있어 왔으나 <서동설화>와 <내복에 산다>, 혹은 <서동요>와 <내복에 산다>를 함께 검토한 사례는 뜻밖에도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서동설화>가 <내복에 산다>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설화라는 기본 전제 아래<sup>3)</sup> 이들 두 설화 및 <서동요>를 간밀하게 비

2) 양희철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총 33명의 <서동요> 해독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양희철, 1997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37-68면 참조.

3)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검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참조할 것. 민찬, 2003 「서동설화 형성의 설화적 논리」, 『韓國言語文學』 50, 한국언

교·검토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서동요>의 몇몇 난해구들에 대한 해독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이와 같은 방식의 해독을 바탕으로 <서동요>의 노랫말이 담고 있는 내밀한 의미 또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고에서 마련하게 될 해석의 결과는 <서동요>가 지니고 있는 참요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 2. 해독 및 해석의 관점

### 1) 기존 연구의 경과

<서동요> 논의에 있어서 <서동설화>의 존재는 늘 관심의 표적이 되어 왔고 환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된 데에는 <서동요>가 <서동설화>의 한 부분으로 설화의 서사적 흐름을 떠맡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童謠之驗’이라는 <서동설화>의 서술자-일연-가 한마디 언급해놓은 것을 연구자들이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한 연구의 시각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렇게 연구의 시각이 정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4)</sup> 거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특히 서동의 입장과 선화공주의 입장이 설화와 노래에서 각각 다르게 처리된 데에 따른 서술상의 간극을 논의에서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아니었겠나 조심스럽게 지적해본다.<sup>5)</sup>

어문학회.

- 4) 이 점은 전적으로 문학연구자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해독과 해석이 상호 별개의 문제는 아니지만 해독과 달리 해석은 문학연구자들이 우선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몫임에는 틀림없다. 이 점을 주목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金烈圭, 1972 『鄉歌의 文學的 研究 一斑』,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양희철, 앞의 책 : 신재홍, 2000 『향가의 해석』, 집문당.
- 5) <서동설화>와 <서동요>의 서술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운채에 의해 적절하게 지적된 바 있다. 정운채, 1995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부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건국어문학』 19·20합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연구회,

〈서동요〉의 해독상 불일치는 ‘薯童房乙’과 ‘妃乙’의 두 부분에서 주로 파생되고 있다. ‘薯童房乙’의 ‘房’을 인칭 아래의 접미사로 보아 ‘서동(맛동방)’으로 해독하는 경우와 ‘房’을 문자 그대로의 방으로 보아 ‘서동 방’으로 해독하는 경우로 나뉘어지는 것이 그 하나이며, ‘妃乙’의 ‘妃’을 ‘卯’으로 보는 경우와 ‘卯’ 혹은 ‘死’으로 보는 경우로 나뉘어지는 것이 나머지 하나이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의 해독은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일문장으로 이루어진 〈서동요〉의 노랫말은 통사구조상 ‘薯童房乙’을 대격으로 본다면 ‘妃乙’은 부사어로 해독되어야 하고 반대로 ‘薯童房乙’을 처소격으로 본다면 ‘妃乙’은 대격으로 해독되어야 문법에 부합한다. 따라서 ‘薯童房乙’과 ‘妃乙’ 두 부분의 해독은 사실상 하나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sup>6)</sup> 여러 가지 해독이 진행된 현재까지도 이 두 가지 해독의 방식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서로 대립되어 있다.

한편 일차적인 관심이 〈서동요〉의 해독에 집중되었고 해독 또한 합의된 결론으로 이끌어지지 못했던 까닭에 해독의 결과를 가지고 심화된 해석으로까지 관심이 확장될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妃乙’의 ‘妃’을 알, 밤알, 불알, 음핵, 임신하여 부른 배, 배속의 아이, 아이, 마, 돛자리, 그릇 등으로 해독해낸 경우도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 말인지,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서동요〉 전체의 문맥이 어떠한 내용이며 또 어떠한 의미인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는 몇몇 제한적인 연구성과만이 소개되어 있을 뿐 의외로 한산하다. ‘妃乙’을 몰래의 뜻으로 해독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의미상 연결이 수월치 않아 〈서동요〉가 담고 있는 내용이나 의미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짧고 단순한 노랫말이다 보니 별다른 내용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해독과 결부된 이른바 해석의 문제는 노래의 성격을 비롯하여 〈서동요〉 전반의 문제를 해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서동요〉를 두고 그것이 동요다 참요다 하며 노래의 성격에 대한 거듭된 논란이 진행되어 왔던 사례도 지적될 만한 사안이다. 『삼국유사』 무왕조 문면

333-335면.

6) 고정의, 1998 「서동요 해독의 재검토」, 『人文論叢』 제15집, 울산대학교, 2면.

에 보이는 '童謠'라는 어휘에 이끌려 처음부터 〈서동요〉는 동요로 받아들여졌고, 박노준처럼 "훨씬 오래 전부터 兒童世界에 널리 퍼져서 불리어진 동요"로 추정해놓은 사례도 나와 있다.<sup>7)</sup> 반면에 김열규가 그것을 '사랑의 呪歌'라고 규정한 이래<sup>8)</sup>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요 혹은 제의요라는 주장들이 이어졌고,<sup>9)</sup> 그 한편에서는 참요라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가와 참요를 분리시켜 참요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sup>10)</sup> 〈서동요〉가 참요라는 사실에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참요로서 지니고 있는 〈서동요〉의 내밀한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 2) 동요지험의 논리

1923년부터 시작된 〈서동요〉 해독의 역사에서 연구자들의 숫자만 30여 명이상을 헤아리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은 모두들 자기 나름의 시각과 방법을 마련하여 해독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난해구들을 중심으로 다기다양한 해독의 성과들을 도출해 놓았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반론에 반론이 거듭 이어졌고 최근에는 초창기 해독의 결과가 다시 주목을 받는 이해적인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불가불 〈서동요〉 해독, 더 나아가 해석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도입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아울러, 해독에 치중한 많은 연구자들은 해독의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해석을 하는 쪽으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면 특이할 만한 현상이다. 해독과 해석이 별개의 문제가 아닌 이상 해독의 결과는 해석으로 이어져야 하며, 해독과 해석이 상호 조응을 이룰 수 있을 때 〈서동요〉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양희철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sup>11)</sup> 표현적 측면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7) 朴魯堉, 1976 「薯童謠의 歷史性과 說話性」, 『語文論集』 17, 고려대 국어국문학회 연구회.

8) 金烈圭, 앞의 글, 16면.

9) 金炳旭, 1976 「薯童謠考」, 『百濟研究』 7, 충남대 백제연구소, 59면 ; 임국현, 1990 「서동요 연구Ⅱ」, 『인제논총』 6-2, 인제대, 360면.

10) 金文泰, 1995 『三國遺事의 詩歌와 敘事文脈 研究』, 태학사, 107-109면.

11) 양희철, 앞의 책, 40면.

점은 그러한 문제의식의 일단이 드러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열규는 일찍이 〈서동요〉를 거론하는 자리에서 〈서동요〉의 성격을 두고 다음과 같이 언급해 놓은 바 있다.

이 노래는 薯童의 詭計다. 그가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 女人을 取하기 위한 詭計의 核으로써 이 노래의 內容은 至極히 單純한 한 편의 行動의 描寫記述일 뿐이다. 또한 敘述法의 文章으로 情緒가 喚起된 것은 없다. 오직 直說的으로 事實이 記述되어 있을 뿐이다. 그것만이 唯一한 主調다. 여기 記述된 行動은 그러나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니다. 薯童이 將次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일이다. 이 點에 바로 이 노래의 詭計가 있는 것이다. 將次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일을 記述하고 있다는 點에서 이 노래는 將次 일어날 일의 先行的 模倣이다. 이 先行的 模倣이 바로 이 노래의 呪術의인 詭計다. “善花公主님은 늑그스기 얹어두고 맛동방을 바미 몰 안고가다.”는 “善花公主님은 남 그옥히 얹어두고 맛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지이다.”라는 所願의 呪術의 表現인 것이다.<sup>12)</sup>

위의 지적처럼 선화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난 후에 서동을 만났고, 우연히 밟고 기뻐하며 서동을 따라가 잠통까지 하게 되었으며, 종국에는 서동과 함께 백제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서동요〉의 노랫말은 “장차 일어날 일의 선행적 모방”에 해당할 수 있다. 노랫말이 담고 있는 선화공주와 서동 사이의 사건이나 그들이 벌이는 일련의 행위는 〈서동설화〉의 그것들과 방불하며, 〈서동설화〉의 서술자는 선화공주의 입을 빌어 ‘童謠之驗’으로 그것들을 표현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동설화〉의 서술자적 진술인 ‘童謠之驗’은 “장차 일어날 일의 선행적 모방”으로서 〈서동요〉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서동설화〉의 나머지 부분들에서조차도 〈서동요〉가 지닌 바 동요지험을 확인해주는 선행적 모방의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서동설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및 행위들이 선행적 모방의 형태로 〈서동요〉의 노랫말 속에 녹아들어 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서동요〉에서 아직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몇몇 난해구들을 〈서동설화〉의 해당 대목들과 관련지어 봄으로써 해독 및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뜻이기도 하다.<sup>13)</sup>

12) 金烈圭, 앞의 글, 14면.

13) 선행 연구에서도 이 점에 착안한 사례가 없지 않으나 〈서동요〉의 해독에 있어서

『삼국유사』 무왕조의 기사를 <서동설화>라고 할 때 <서동설화>는 서동의 출생담, 서동의 결연담, 그리고 미륵사 창건담 등 전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그 중 미륵사 창건담을 후대에 덧붙여진 사찰연기담으로 인정할 경우<sup>14)</sup> 본래의 모습에 가까운 <서동설화>는 서동의 출생담과 결연담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서동의 출생담과 결연담은 각각 <야래자설화>와 <내복에 산다>와 구조적 동질성을 보이고 있어 <서동설화>의 연원 및 그 형성의 배경을 짐작하게 해준다.<sup>15)</sup> 그런데 <서동요>는 <서동설화> 중 서동의 결연담에 포함되어 있는 노래로 <서동요>를 <서동설화>와 비교해볼 경우 서동의 결연담이 일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동요>와 서동의 결연담 사이에는 동요지험으로 일컬어지듯 <서동설화> 내부에서의 내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복에 산다> 또한 <서동요>의 실체를 헤명해줄 요긴한 비교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동설화> 중에서 특히 서동의 결연담, 나아가 <서동요>가 출현하는 데 있어 <내복에 산다>가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sup>16)</sup> 이들 사이에 통시적 연관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설화를 중층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서동요>의 노랫말에 대한 해독 및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이 같은 접근방식은 요컨대 동요지험의

<서동설화>의 해당 문맥을 충분히 활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정운채는 <서동요>를 <삼공본풀이>와 관련짓는 자리에서 “<서동요>의 예언력이 선화공주와 서동의 결연에까지 미쳐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고 왕위에 오르는 일일까지도 유효해야 하는 것”이라고 의미 있는 지적을 해놓고 있다. 張珍奭, 1993 『新羅歌謠의 研究』, 형설출판사 ; 金文泰, 1995 『三國遺事의 詩歌와 敘事文脈 研究』, 태학사 ; 정운채, 1996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인 힘의 유래」, 『인문과학논총』 28,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참조.

14) 宋在周, 1971 「鶯童謠의 形成年代에 對하여」,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호서문화사, 964면.

15) <서동설화>와 <야래자설화>, 그리고 <내복에 산다>를 함께 다룬 논의는 그 동안 많이 있어 왔다. 그 중에서 특히 본고의 논지와 관련하여 <서동설화>와 <내복에 산다>의 구조적 동질성 내지 유사성에 주목한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崔雲植, 1973 「꽃겨난 女人 發福說話考」, 『한국민속학』 6, 민속학회 ; 林在海, 1981 「武王型 說話의 類型的 性格과 女性意識」, 『女性問題研究』 10,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 김석배, 1982 「<내복에 산다>형 민담 연구」, 『문학과 언어』 3, 문학과언어연구회 ; 金大淑, 1994 『韓國說話文學研究』, 집문당 ; 민찬, 2003 「서동설화 형성의 설화적 논리」, 『韓國言語文學』 50, 한국언어문화회.

16) 민찬, 위의 글, 35-43면 참조.

논리를 확장적으로 적용해보고자 하는 시도인 동시에 <서동요>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서동요>를 <서동설화> 그 중에서도 결연담 및 <내복에 산다>와 함께 비교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해독의 문제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薯童房乙’ 및 ‘외乙抱遣去如’는 일단 여기서는 제외시켜 둔다.

	<서동요>	<서동설화>	<내복에 산다>
주인공	善化公主	선화공주	부잣집 셋째 딸
행위(1)	他密只嫁良置占	추방	추방
공간	①	서동의 집	숫구이총각의 집
행위(2)	②	동행	틈입
결과	③	부자/등극	부자

### 3. ‘薯童房乙’과 ‘외乙’의 문제

#### 1) ‘薯童房乙’

‘薯童房乙’을 ‘서동방을’로 해독한 소창진평의 설을 받아들여 양주동이 ‘房’을 남자를 위한 접사 ‘방’으로 보고 ‘맛동마을’로 해독한 이래 여러 연구자들이 그 설을 따랐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독에서는 ‘薯童房을’, ‘薯童房을’, ‘맛동마을’, ‘서동방을’, ‘맛동방을’, ‘마동방을’, ‘맛동방을’, ‘마동마을’, ‘맛동마을’, ‘마동방을’ 등으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다 서동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 같은 해독의 방식은 초창기 <서동요> 해독의 주된 경향이었으며, 심재기, 엄국현을 거쳐 최근에는 윤철중, 신재홍으로 이어지고 있다.<sup>17)</sup> 신재홍은 ‘房’을 ‘서방’으로 풀이하여 ‘맛동이 서방을’로 해독하고 있어 차이를 보여주나<sup>18)</sup> 그것 또한 서동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

17) 沈在箕, 1998 「薯童謠 解釋 插疑」, 『國語國文學論叢Ⅲ』, 탑출판사 : 엄국현, 1990 「薯童謠 研究Ⅱ」, 『仁濟論叢』 6-2, 인제대학교 ; 윤철중, 1998 「薯童謠의 新考察」, 『신라가요의 기반과 작품의 이해』, 보고서 : 신재홍, 2000 『향가의 해석』, 집문당.



찬가지 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薯童房乙’을 서동의 방 혹은 집으로 보는 견해는 지현영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는데,<sup>19)</sup> 홍기문, 정렬모, 김선기를 거쳐 김완진에 이르러 일단 정리되었다고 본다.<sup>20)</sup> 김완진은 ‘薯童房乙’의 ‘房’을 문자 그대로의 방으로 보고 끝에 오는 ‘去如’의 행동 방향으로 잡는다고 지적해놓고 있다.<sup>21)</sup> 그 뒤에도 이러한 해독 방식은 홍재휴, 남풍현, 장성진, 유창균, 강길운, 양희철, 고정의 등으로 이어지면서<sup>22)</sup> 정설로 굳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乙’을 ‘알’로 해독하는 견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다시금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서동지블’, ‘머선 방을’, ‘쏘똥 째음’, ‘薯童 방을’, ‘마아리 굶을’, ‘맛동 방을’, ‘서동 방을’, ‘薯童 지블’, ‘막동 집을’, ‘맛동 입을’, ‘막동 입을’ 등 구체적인 해독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주나 방이나 집 등 그것이 처소를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주장들이다.

이상 ‘薯童房乙’에 대한 기왕의 해독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각 항목을 비교해보면서 타당한 해독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서동요>의 ‘薯童房乙’은 위 표의 비교항목 중 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동설화>와 <내복에 산다>에는 그것이 각각 ‘서동의 집’, ‘숫구이총각의 집’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①에는 서동의 집 정도에 해당하는 어휘가 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이 <서동요>에는 ‘薯童房乙’로 되어 있는 것이다. ‘房’을 무의미한 접사로 보아 ‘서동을’로 해독하면 공간을 지시하는 어휘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반면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의 방’으로 보면 ‘薯童房乙’은 ‘서동의 방’으로 해독되고 결과적으로 ‘서동의 집’이나 ‘숫구이총각의 집’에 해당하는 어휘가 된다. 노랫

18) 신재홍, 위의 책, 146면.

19) 池憲英, 1947 『鄉歌麗謠新釋』, 정음사, 71면.

20) 홍기문, 1956 『향가 해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 정렬모, 1965 『향가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 金完鎭, 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출판부.

21) 金完鎭, 위의 책, 95면.

22) 洪在然, 1983 『韓國古詩歌律格研究』, 태학사 : 南豐鉉, 1982 「薯童謠의 ‘乙’에 대하여」, 『白影鄭炳昱先生還甲紀念論叢』, 신구문화사 : 張成鎭, 1986 「薯童謠의 形成 過程」, 『한국전통문화연구』 2,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 兪昌均, 1994 『鄉歌批解』, 형설출판사 : 姜吉云, 1995 『鄉歌新解讀研究』, 학문사 : 楊熙喆, 앞의 책 : 고정의, 1998 「서동요 해독의 재검토」, 『人文論叢』 15,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말의 바탕이 되는 <서동설화>, 그리고 그것의 바탕이 되는 <내복에 산다>와 정확하게 부합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다. 해당 문맥을 따라가며 먼길을 돌아온 '薯童房乙'의 해독은 뜻밖에도 <서동요>의 문면에 이미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 2) '外乙'

'外乙'은 '薯童房乙'에 비해 사정이 복잡하다. 우선 『삼국유사』의 '外'자가 각판의 마모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훼손되었던 관계로 정확한 글자를 비정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해독상의 난점이 있다. 그러한 난점이 결국 이후의 해독에 꾸준히 간여함으로써 이 대목뿐만 아니라 <서동요> 전체의 의미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남풍현, 심재기 등 '外乙'에 대한 해독의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거듭 논문이 발표될 만큼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또 그 만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해독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윤철중처럼 그 부분의 각자체를 『삼국유사』의 다른 대목과 정밀하게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sup>23)</sup> 기존의 해독은 대략 '外'을 '外'의 오자로 보는 경우와 '卯'의 오자로 보는 경우로, 다시 '卯'로 보는 경우는 '卯乙'을 '몰래'로 해독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 '卯'으로 보는 경우는 '卯乙'을 '알을'로 해독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 등으로 각각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소창진평이 '外'자를 간단히 '卯'자의 오기로 판단하여 '몰래'의 뜻으로 해독하고 그 설을 양주동이 받아들인 이래 이 견해는 <서동요> 해독의 초창기 논의를 이끌어왔다고 평가된다. 지현영이 '外'로 보고 '卯乙'을 '몰'로 해독함으로써 '무엇을'(뭘)로 본 사례도 없지 않으나,<sup>24)</sup> 그것은 이후 거듭된 논란의 와중에서도 힘을 잃지 않았던 대표적인 견해로 인정될 만하다. 그러나 그 뒤 흥기문이 음독하여 앞의 글자에 붙여서 '바뜨란'(밤에는)으로 해독하고 정렬모가 훈독하여 앞의 글자에 붙여서 '바미알'(밤알)로 해독하면서 '外'자를 '卯'자로

23) 윤철중, 앞의 글, 236-254면.

24) 池憲英, 1947 『鄉歌麗謠新釋』, 정음사, 71면.

보는 새로운 시각이 만들어졌다.<sup>25)</sup> 다시 그러한 움직임은 서재극, 김완진을 거치면서 'ㄹ乙'을 '卯乙'으로 보고 '알을'로 해독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러한 견해들은 앞선 해독과는 다른 또 하나의 해독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이때까지는 'ㄹ乙'의 해독이 '몰래'와 '알을'이라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이에 대한 반론이 일어났고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다른 각도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ㄹ'을 '卯'으로 보아 '알'로까지는 파악해 놓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에 마주쳐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게 되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시도들은 'ㄹ'을 '卯'로 보는 처음의 견해를 취하되 '卯乙'을 '몰래'라는 부사어가 아니라 목적격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달라서 박갑수가 '뉘을'로 해독하고 돛자리(席)의 뜻으로, 남풍현이 '모뉘'로 해독하고 마(薯蕷)의 뜻으로, 엄국현이 '도깨'로 해독하고 그릇의 뜻으로 각각 파악해 놓고 있다.<sup>26)</sup> 'ㄹ乙'이 부사어 '몰래'로 해독되었다가 목적격 '알을'로 바뀌었고, 다시 목적격 '마를', '돛자리를', '그릇을' 등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홍재휴, 장성진, 정창일, 장진호, 유창균, 강길운, 양희철, 김문태 등은 여전히 'ㄹ乙'을 '알을'로 해독하는 입장을 지지했다.

한편 'ㄹ'을 '卯'나 '卯'으로 보는 입장을 모두 거부하고 제3의 대안으로 'ㄹ'으로 보고자 하는 새로운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卯'나 '卯' 어느 쪽이든 명쾌한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에 다시금 모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ㄹ'자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ㄹ'의 새김인 '누워 뉘굴다'에 착안하여 'ㄹ乙'을 그 뒤의 '抱遺'과 합하여 '뉘굴 안고'로 해독한 심재기의 견해는<sup>27)</sup> 금기창, 윤철중으로 수용되어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냈다.<sup>28)</sup> 그 밖에 신재홍은

25) 홍기문, 앞의 책, 203면 ; 정렬모, 앞의 책, 115-116면.

26) 朴甲洙, 1981 「鄉歌 解讀의 몇 가지 問題」, 『金亨奎博士古稀紀念論叢』, 동 간행위원회, 174-175면 ; 南豊鉉, 앞의 글, 196면 ; 엄국현, 앞의 글, 357면.

27) 沈在箕, 앞의 글, 735면.

28) 琴基昌, 1993 「新羅文學에 있어서의 鄉歌論」, 태학사, 1993, 165-167면 ; 윤철중, 앞의 글, 257-258면.

‘卯乙’로 보고 ‘卯’의 새김에서 시사를 받아 ‘물/더블’로 해독, ‘무턱/덥석’의 의미로 파악하는 독특한 발상을 보여주었다.<sup>29)</sup> 이상 살펴본 대로 ‘卯乙’에 관한 해독의 사례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그 중에는 기발한 착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면 앞서 수행한 ‘薯童房乙’의 해독과 선행 연구자들의 견해, 그리고 <서동설화> 및 <내복에 산다>의 해당 문맥을 비교하면서 ‘卯乙’에 대한 해독을 진행해보기로 한다.

‘薯童房乙’이 ‘서동의 방을’로 해독됨에 따라 ‘卯乙’의 자리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용언 ‘抱遺去如’의 목적격이 들어가는 것이 문법에 맞다. <서동요>가 단일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해독에 있어서도 문법의 논리를 도외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卯乙’을 부사어 ‘몰래’로 파악한다든지 ‘땡굴’로 보아 용언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선 문법적인 질서에 어긋난다. 따라서 ‘卯’의 자리에는 알이나 돛자리, 마, 그릇 등 명사에 해당하는 어휘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볼 경우 이 대목의 해독은 ‘卯’을 알로 보느냐 아니면 돛자리, 마, 혹은 그릇으로 보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로 좁혀지게 된다. 그런데 돛자리, 마 등의 해독은 남풍현, 심재기 등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차자표기법의 주의성을 지나치게 적용한 사례로 보여진다. 그릇 또한 해독의 과정에서 어학적 배경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알로 보는 견해 역시 알의 의미가 명확하게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여러 차례 반론에 직면한 바 있어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卯乙’의 해독은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설화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卯乙’에 이어지는 ‘抱遺去如’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안고 가다’ 혹은 ‘안고 가여’로 해독을 해놓고 있다. 간혹 ‘안겨 가다’나 ‘안고 갖저’ 등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는 동작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해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卯乙抱遺去如’는 앞에서 마련한 도표의 비교 항목 중 행위(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행과 틈입으로 정리해 놓은 두 설화의 해당 문맥과 의미가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동설화>의 선행공주가 가지고 간 것은 모후가 준 순금 한 말이었다. 그리고 <내복에 산다>의 부잣집

29) 신재홍, 앞의 책, 149-151면.

셋째 딸이 가지고 간 것은 셋째 딸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복이었다. <삼공본풀이>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배또롱 아래 선그릇' 즉 셋째 딸 자신의 음부로 표현해놓고 있다. 즉 'ㄹ乙'의 'ㄹ'은 순금, 복, 음부 등과 관련을 맺고 있는 어휘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접근했을 때 'ㄹ'을 '卵'로 보고 dot자리나 마, 혹은 그릇으로 해독하는 것은 의미상 그것 이상의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순금, 복, 음부 등과 함께 의미상의 관련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ㄹ'을 '卵'으로 보고 알로 해독하는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알이 순금이나 복, 혹은 음부와 의미상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내려진 판단이다. 남은 과제는 이제 '알'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서동요> 전체의 의미를 확인하는 쪽으로 모아진다. 그것은 <서동요>의 노랫말에는 나와 있지 않은 ③의 의미를 캐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 4. 참요 <서동요>의 함의

앞에서 확인했듯이 'ㄹ乙'의 'ㄹ'을 알로 해독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알이라는 해독은 같지만 해석은 다들 다르게 해놓고 있다. 서재극은 고환으로, 홍재휴는 음핵으로, 장성진은 공주의 성기 또는 성징을 나타내는 신체어로, 정창일은 알탐(부도)으로, 장진호는 통(서동)으로, 강길운은 아기로, 양희철은 아이(사생아) 혹은 아래(임신한 배)로, 김문태는 임신하여 부른 배로, 고정희는 선화공주로 각각 해석을 해놓고 있다.<sup>30)</sup> 김완진은 그것을 알로 보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까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알을 안고 간다'는 것이 당시의 어떤 은어 내지는 비유적 표현인 것 같기도 느껴진다고 하면서 해석을 보류해놓고 있다.<sup>31)</sup> 똑같이 알로 해독한 다음에도 실로 다양한 해석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점도 짐작되는 바 있을 것이다. 논의의 진행상 해석의 문제를 잠시 보류하고 <서동요>가 지니고 있는 노래로서의 성격을 먼

30) 이상의 제 견해들에 대해서는 양희철의 연구성과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양희철, 1997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50-51면.

31) 金完鎭, 앞의 책, 96면.

저 살펴보기로 한다.

김열규가 장차 일어날 일의 선행적 모방, 혹은 소원의 주술적 표현이라고 규정하여 그 주가적 성격을 부각한 이후 뒤이은 연구자들은 주가의 일반적인 범주에서 참요를 분리시켜 <서동요>의 참요적 성격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서동요>의 참요적 성격은 일찍이 이은상에 의해 처음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논의가 궤도에 오르면서 윤영옥, 김종우, 홍재휴, 이종출, 최범훈, 장성진, 양희철, 김문태 등 많은 동조자들이 참요설을 지지하고 나섰다.<sup>32)</sup> 김문태는 특히 일반적인 주가와는 다른 참요의 특징으로 동음이의어, 파자, 은유 등의 수법을 거론하여 <서동요>를 참요로 규정했고, 그 규정에 따라 '刈'을 '卵'으로 해독한 다음 임신하여 부른 배로까지 해석을 시도했던 것이다. <서동요>를 두고 '얼레절레'류의 동요, 마 캐는 서동들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등등으로 다른 쪽의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참요로 보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동요지험의 논리에 힘입어 <서동요>를 바라보고자 하는 본고 또한 참요로 보는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서동요>를 참요로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지닌 참요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서동요>의 해독에만 매달려 왔지 그 해석의 영역으로까지 관심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대다수 연구자들은 김문태가 내리고 있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가상적인 현실문맥으로 이루어진 참요”라는 규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서동요>를 선화공주와 서동 사이의 결연의 문제에 한정함으로써 참요로서 <서동요>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확장적으로 포착해내는 데에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참요라는 성격 규정과는 별도로 '알'의 의미를 고향, 음핵, 성기, 알뜰, 아기 등으로 다양하게 파악해놓고 있는 선행 연구자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여준다. 다만 선화공주가 안고 가

32) 尹榮圭, 1981 『新羅詩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150면 ; 金鍾雨, 1982 「〈薺童謠〉研究」, 『三國遺事의 文藝的 研究』, 새문사, 1-73면 ; 洪在傑, 『韓國古詩歌律格研究』, 태학사, 139면 ; 李鍾出, 1983 「薺童謠의 새로운 理解」, 『韓國言語文學』 22, 한국언어문학회, 97면 ; 崔範勳, 1984 「讖謠研究」, 『韓國文化研究』 1, 경기대 한국문화연구소, 73면 ; 張成鎮, 1986 「薺童謠의 形成 過程」, 『한국전통문화연구』 2,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43면 ; 楊熙詒, 앞의 글, 23-24면 ; 金文泰, 1995 「三國遺事의 詩歌와 敘事文脈 研究」, 태학사, 105-113면.

는 알을 사생아 내지 임신한 배로 파악하고 있는 양희철만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던져놓고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경우다.

그러나 <서동요>와 관련설화에 내재한 반어와 그 반어의 기능으로 보아, 백제 내지 후백제와 신라의 경쟁적 관계에서 백제인 내지 후백제인들이 그들의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노래와 설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백제인의 경우는 자신들의 왕비를 결국에는 바보로 만드는 것이 되어 이런 노래와 설화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계산하면, 이 노래와 설화를 만든 사람은 후백제인이라 한정할 수 있다. 만약 이 가정이 가능하다면 <서동요>는 계략구처(計略求妻) 정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백제인의 그 누구인가가 그들의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략구처의 내용을 노래화 하고 설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sup>33)</sup>

그러면 이제부터 '알'에 대한 해석을 시작해보기로 한다. 전항에서 이미 알은 <서동설화>의 순금, <내복에 산다>의 복, <삼공본풀이>의 배뜨롱 아래 선그뭇 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서동설화>가 여인발복설화 중에서도 특히 <내복에 산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삼공본풀이>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도 거듭 지적되어 왔다. <내복에 산다>의 부자 아버지는 셋째 딸을 쫓아낸 후에 거지가 되었다. 그것은 복을 가지고 있는 그 딸이 집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지게 된 당연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누구 덕에 사느냐고 묻는 아버지의 말에 내 복에 산다고 대답한 그 딸의 말은 <삼공본풀이>에서는 배뜨롱 밑의 선그뭇, 즉 음부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서동요>에서는 알로 되어 있는 것이다. 알과 복, 음부와 관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화공주가 서동을 따라 백제에 들어온 다음 수행한 첫 번째 일은 황금을 찾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복에 산다>나 <삼공본풀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황금을 획득한 선화공주가 서동에게 한 첫 번째 제안은 자신의 부모님이 계신 대궐로 그것을 보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신평왕은 그로 인해 서동을 존경하게 되었고 항상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다. 서동은 이에 인심을 얻어서 왕위에 올랐다. 서동의 결연담에 이어져 있는

33) 양희철, 1997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65-66면.

이 일련의 대목들은 <내복에 산다>와 <삼공본풀이>에서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거지가 된 아버지가 걸식 차 들른 곳에서 부녀상봉이 이루어지고 이후 셋째 딸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복을 인정받은 다음 아버지를 구제한다. 바로 그 대목이 <서동설화>에서는 선화공주가 황금을 신라 궁궐에 보내는 느닷없는 행위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 대목에서, 진평왕이 항상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다는 표현을 예사롭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선화공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를테면 “아버지, 제가 누구 덕에 살지요?”하며 다짐을 받기 위해 던지는 <내복에 산다>의 셋째 딸의 물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복에 산다>의 핵심 모티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동요>의 두 주인공 선화공주와 서동이 이미 평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라의 공주가 백제로 넘어 왔고 그 신라공주의 남편이 백제의 왕이 되었다는 <서동설화>의 내용은 백제와 신라라는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상징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해준다. 부잣집 아버지로서의 신라 진평왕, 부잣집 셋째 딸로서의 선화공주, 숲구이총각 혹은 마통이로서의 서동, 그리고 부자가 되고 백제의 왕으로 등극한 서동, 서동에게 안부를 묻는 신라의 왕 등으로 짚어지는 <서동요>의 노랫말은 그것이 비록 ③을 비워두고는 있지만 <서동요>가 참요인 한 백제와 신라 사이에 얽혀 있는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의미가 비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서동의 집으로 선화공주가 안고 간 알의 궁극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후 신라의 국운이 백제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참요적 발상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서둘러 말하자면 필자의 생각은 그것이다. 김완진의 지적대로 “당시의 어떤 隱語 내지는 比喩的 表現인 것 같기도 느껴지”<sup>34)</sup>는 ‘알을 안고 간다’의 알의 의미는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신라와 백제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과거의 어느 때가 바로 ‘당시’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도 함께 가져보게 되는 것이다.

34) 金完鎮, 앞의 책, 96면.



	〈서동요〉	〈서동설화〉	〈내복에 산다〉
주인공	善化公主	선화공주	부잣집 셋째 딸
행위(1)	他密只嫁良置古	주방	추방
공간	薯童房	서동의 집	숫구이총각의 집
행위(2)	刈乙抱遣去如	동행	틈입
결과	(백제 국운의 융성)	부자/등극	부자

## 5. 결 론

전체 25자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서동요〉의 해독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향찰표기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의 처지에서 〈서동요〉를 비롯한 향가의 완벽한 해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 연구자들이 노력한 결과 〈서동요〉에 관해서는 이제 해독이나 해석 및 성격이나 기능 등의 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거뒀졌다. 다만 해독은 난해구인 ‘薯童房乙’과 ‘刈乙’이 〈서동요〉 전반의 이해를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왕의 논의들이 마련해놓은 훌륭한 성과들을 여전히 의문의 영역 속으로 가둬두고 있는 것이다. 불가불 이 두 난해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동설화〉와 〈내복에 산다〉라는 두 설화를 논의에 끌어들여 〈서동요〉의 해독 및 해석의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서동설화〉는 〈서동요〉를 포함하고 있는 설화로 특히 설화의 후반부 결연담은 ‘童謠之驗’이라고 표현해놓고 있듯이 〈서동요〉의 서사적 문맥을 해명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으며, 〈내복에 산다〉는 〈서동설화〉의 모태 내지 하나의 원형이 되는 설화로서 그 속에도 〈서동요〉의 해독이나 해석에 요긴한 암시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薯童房乙’에서의 ‘房’, 그리고 ‘刈乙’에서의 ‘刈’ 등 〈서동요〉의 전반적인 이해를 가로막는 두 글자의 해독에 있어서는 〈서동설화〉나 〈내복에 산다〉 안에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논의의 결과 '房'은 말 그대로의 방으로 해독되어야 하며 '卵'은 '卵'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특히 '卵'은 '알'로서 그것의 보다 확장된 의미는 '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서동요>의 선화공주가 안고 간 알은 이를테면 <내복에 산다>의 부잣집 셋째 딸이 지니고 나간 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서동설화>에서는 서동을 부자로 만들고 중국에는 백제의 왕으로까지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선화공주가 진평왕에게 순금을 보내고 진평왕이 서동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존경하게 되었다는 <서동설화>의 그 이해하기 곤란한 후반부 일련의 사건들은 <내복에 산다>를 떠나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 점은 <서동요>의 참요적 성격과도 관련이 깊다. <내복에 산다>의 논리에 의하자면 복이 있는 선화공주가 디친한 서동에게로 온 것이 <서동설화>이며 또한 <서동요>의 내용이다. 즉 신라의 선화공주가 복을 지니고 백제의 서동에게로 온 것이다. 이 부분에서 혹 신라의 국운이 백제로 넘어온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 <서동요>를 참요로 보고자 하는 본고의 입장인 셈이다. 그렇다면 <서동요>는 신라와 백제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과거 어느 때에 경쟁국 신라의 국운을 제압하고자 하는 백제인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들에 의해 불려졌을 정치적 색채가 짙은 노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서동요>는 그 내밀한 의미를 노랫말에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앞서 말한 <서동설화>의 그 이해하기 곤란한 후반부 일련의 사건들이야말로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본고에서 바라보는 참요로서의 <서동요>의 함의인 것이다.

(필자 : 대전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 서동요, 서동설화, 내복에 산다, 참요, 향가

투고일(2004. 4. 22), 심사시작일(2004. 5. 13), 심사종료일(2004. 6. 4)

## 참 고 문 헌

- 姜吉云, 『鄉歌新解讀研究』, 학문사, 1995.
- 고정의, 「서동요 해독의 재검토」, 『人文論叢』 15,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1998, 1-31.
- 琴基昌, 『新羅文學에 있어서의 鄉歌論』, 태학사, 1993.
- 金大畝, 『韓國說話文學研究』, 집문당, 1994.
- 김무현, 「서동요 재론」, 『靑坡徐楠春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 경운출판사, 1990, 61-72.
- 金文泰, 『三國遺事의 詩歌와 敍事文脈 研究』, 태학사, 1995.
- 金炳旭, 「薯童謠考」, 『百濟研究』 7, 충남대 백제연구소, 1976, 51-66.
- 金承璨 편, 『鄉歌文學論』, 새문사, 1986.
- 金烈圭, 「鄉歌의 文學的 研究 一斑」,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1-54.
-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출판부, 1980.
- 金鍾雨, 「〈薯童謠〉 研究」, 『三國遺事의 文藝的 研究』, 새문사, 1982, I-60- I-73
- 南豊鉉, 「薯童謠의 '외乙'에 대하여」, 『白影鄭炳昱先生還甲紀念論叢』, 신구문화사, 1982, 206-215.
- 민 찬, 「서동설화 형성의 실화적 논리」, 『韓國言語文學』 50, 한국언어문화회, 2003, 23-47.
- 朴魯堉, 『新羅歌謠의 研究』, 열화당, 1982.
- 박노준, 『향가여요의 정서와 변용』, 태학사, 2001.
- 宋在唐, 「薯童謠의 形成年代에 對하여」,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호서문화사, 1971, 955-990.
-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 沈在箕, 「薯童謠 解釋 插疑」, 『國語國文學論叢Ⅲ』, 탑출판사, 1989, 726-737.
- 梁柱東,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1965.

- 楊熙喆, 「薯童謠의 語文學的 研究」, 『語文論叢』 11, 청주대 국어국문학과, 1995, 1-30.
-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1997.
- 엄국현, 「薯童謠 研究Ⅱ」, 『仁濟論叢』 6-2, 인제대학교, 1990, 347-366.
- 俞昌均, 『鄉歌批解』, 형설출판사, 1994.
-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1.
- 윤철중, 「薯童謠의 新考察」, 『신라가요의 기반과 작품의 이해』, 보고서, 1998.
- 李鍾出, 「薯童謠의 새로운 理解」, 『韓國言語文學』 22, 한국어언어학회, 1983, 91-110.
- 임기증, 『新羅歌謠와 記遺物의 研究』, 이우출판사, 1981.
- 張成鎮, 「薯童謠의 形成 過程」, 『한국전통문화연구』 2,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6, 225-244.
- 張珍昊, 『新羅鄉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1993.
- 정렬모, 『향가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 정운채,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건국어문학』 19·20, 건국대 국어국문학회, 1995, 333-355.
- \_\_\_\_\_,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인 힘의 유래」, 『인문과학논총』 28,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1996, 23-41.
- 池憲英, 『鄉歌麗謠新釋』, 정음사, 1947.
- \_\_\_\_\_, 『鄉歌麗謠의 諸問題』, 태학사, 1991.
- 秦聖麒, 『南國의 傳說』, 일지사, 1959.
- 崔範勳, 「讖謠研究」, 『韓國文化研究』 1, 경기대 한국문화연구소, 1984, 69-84.
- 黃仁德, 「佛典系 韓國民譚 研究」,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 황과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 홍기문, 「향가 해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1956.
- 洪在然, 『韓國古詩歌律格研究』, 태학사, 1983.

<Abstract>

## On the Decoding and Interpretation of “Seodong-yo”

Min, Chan\*

This essay focuses on the problems of interpretation on “Seodong-yo” which is one of Hyangga in the Shilla and extracts the meanings in the words of the song with the new viewpoint that “Seodong-yo” connects with the “Tale of Seodong” and “Living with My Blessing”. Traditionally, “Seodong-yo” has been a kind of children’s verse, but recently it has been appraised as an incantation or prophetic song. Especially in case it is a prophetic song, it should extend to what the song means.

So far, thirty researchers have studied “Seodong-yo”.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ir interpretations. This essay interprets “Seodong-yo” in connection with the tale including misread parts, and grasps the meaning of “Seodong-yo” as a result of this interpretation. The following points are made:

1. ‘Bang’(房) of ‘Sea-dong-bang-eul’(薯童房乙) should be interpreted as ‘bang’(房/room), and ‘Ran(列)’ of ‘Ran-eul’(列乙) is the erratum of ‘ran’(卵) which means an egg.
2. ‘Ran’ is an egg, but its symbolic meaning is the blessing of royal princess Seonwha. That royal princess Seonwha with blessing goes to the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aejeon University

room of Seodong is the whole meaning of the words of "Seodong-yo".

3. Since "Seodong-yo" has an extended meaning, which the fate of Shilla passes into Baekje, it intends to the hope that the fate of rival Shilla transfers to Baekje.

4. From this viewpoint, "Seodong-yo" will become a prophetic song, and the nationality of "Seodong-yo" is Baekje not Shilla.

Key Words : "Seodong-yo", "Tale of Seodong", "Living with My Blessing",  
Prophetic song, Hyangga